

한동훈 “내 임기 총선 이후까지”...사퇴요구 재차 일축

김 여사 명품백 논란 윤 대통령과 충돌 ‘홀로서기’ 행보 거친 발언 사과 김경률 비대위원도 “입장 변화는 없다”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불수용 입장을 확고히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의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전날 관련 보도가 나오자 “국민 보고 나선 일, 할 일 하겠다”며 공식 입장을 발표한 데 이어 사퇴 요구를 재차 일축하며 당헌·당규에 6개월로 정해진 ‘비대위원장 임기 완주’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이는 총선이 80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홀로서기’ 행보를 시작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김사 시절부터 오랫동안 윤 대통령을 직속상관으로 모셨고, 현 정부가 출범하자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되며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여겨진 그가 사실상 정치적 독립을 선언한 셈이다.

한 위원장은 특히 전날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전달된 사퇴 요구가 과도한 당무 개입이라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해 대통령의 사퇴 요구가 있었고, 이를 거부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는 김 여사 명품백 논란, 김경률 비대위원의 ‘마포를 출마’ 사천(私薦) 논란과 관련해 자신의 인식이 윤 대통령과는 다르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실제로 한 위원장은 이번 갈등의 원인으로 거론되는 김 여사 논란에 관한 입장에 변화가 있는지를 묻자 “내 입장은 처음부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며 “국민 눈높이”가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부각했다.

김 비대위원 역시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내 거친

언행이 어려므로 불편함을 느낀 점이 있었다”며 김 여사를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유한 발언 등을 사과했지만, 회의 후 입장 변화 여부를 묻자 “계속 같은 생각이다. 문제를 거칠게 나눈다면 나는 변한 게 없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과 김 위원장의 이날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에서는 아직 특별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대응책을 고심하는 분위기다.

당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사이의 갈등은 김 여사 관련 논란에 대한 두 사람의 근본적인 입장차가 본질이라는 분석이 많다.

총선 승리에 자신의 정치적 명운을 건 만큼 국민 여론의 흐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한 위원장의 생각과 부인의 ‘역물한’ 문제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는 윤 대통령의 입장이 충돌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당내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의 여론몰이를 통해 한 위원장의 거취를 계속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한 위원장이 입장을 굽히지 않는 한 사퇴를 강제할 마땅한 방법은 없다는 게 당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비대위원장이 권위되면 후임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방법도 당헌·당규상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결국 김 여사 관련 논란이 어떤 식으로든 정리되지 않는 한, 여론을 혼돈으로 몰고 있는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충돌 양상이 출구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당과 대통령실의 갈등은 얼마 남지 않은 총선에 ‘대형 악재’로 여겨지는 만큼 주변의 중재가 이뤄지고 양측이 ‘정치적 해법’을 마련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광복 기자kroh@kwangju.co.kr·연합뉴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김경률(뒷쪽) 위원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앞쪽은 윤재옥 원내대표, 한동훈 위원장, 유의동 정책위의장./연합뉴스

이준석 “한동훈 사퇴 요구는 약속대련...애초에 기획된 것”

“韓에 힘 쏠리는 모양새로 끝낼 것”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22일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에게 사퇴 요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애초에 기획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 위원장을 잘 아는 모 인사가 내게 ‘이관섭 실장을 보낸 건 약속 대련’이라고 이야기 하더라”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을 속된 말로 혼내거나 싫은 소리 할 일이 있으면 전화하거나 텔레그램을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 실장을 보

내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약속대련은 공격과 방어를 사전에 약속하는 태권도 용어다. 이 대표의 언급은 ‘한동훈 사퇴 요구’ 사태가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사이에서 기획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이어 “한 위원장 쪽에 힘이 쏠리는 모양새로 끝을 내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자기를 판에는 약속대련인데, 이 사람들이 내부적으로 2012년 이명박 대통령 당시 박근혜 비대위 연구를 많이 한다고 한다”며 “외견상으로는 대중 싸우면 되는구나 생각하겠지만, 그때 그런 것과 느낌이 다르다”고 했다. 이어 “박근혜와

한동훈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효과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2년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였던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차별화를 꾀하면서 총선에서 승리했지만, 이번 총선 상황은 그때와 다르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당시 비대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대통령 지지율이 30% 나오는 상황에서 그 30을 갖고 자기들끼리 ‘친윤’ (친윤석열)이니, ‘친한’ (친한동훈)이니 갈라 싸우고 있는 것”이라며 “아무리 싸우는 척해도 중국집에 (번호만 다른) 전화기 두 대 있는 느낌밖에 안 난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지지율 36.8%...보수층·영남 상승

리얼미터...국힘 36.6%·민주 45.1%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오차 범위 내에서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19일(1월 3주차) 전국 18세 이상 2천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는 오차범위(±2.0%p) 내에서 직전 조사(1월 8~12일)보다 0.5%포인트(p) 상승한 36.8%로 조사됐다. 부정평가는 오차범위 내인 0.5%p 하락한 59.8%p로 조사됐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무선(97%)·유선(3%)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3.3%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직전 조사 대비 3.0%p 내린 36.6%, 더불어민주당이 2.7%p 오

른 45.1%로 조사됐다. 양당의 지지도는 모두 오차범위(±3.1%) 안에서 움직였다. 직전 조사에서 2.8%p였던 양당 간 지지도 격차는 이번 조사에서 8.5%p로 늘어 다시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광주·전라(10.9%p ↓), 부산·울산·경남(6.7%p ↓), 대전·세종·충청(4.6%p ↓), 서울(4.2%p ↓)에서 하락했고, 대구·경북(2.3%p ↑)에서 상승했다.

민주당은 광주·전라(14.3%p ↑), 대전·세종·충청(12.0%p ↑), 부산·울산·경남(4.0%p ↑) 등에서 올랐고, 대구·경북(7.6%p ↓) 등에서 내렸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무선(97%)·유선(3%)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국힘, 29일~다음달 3일 총선 후보자 공천 신청

현역 컷오프 여론조사 돌입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에서 총 233곳의 지역구에 출마할 후보자들의 공천 신청을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받는다고 22일 공고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후 발표한 정치개혁안에 따라 이번부터 공천 신청자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금고형 이상의 형 확정 시 세비 전액 반납 서약서,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

수 금지 서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는 가상자산 보유 현황 증빙 자료를 내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4·10 총선에서 기존 지역구에 출마하려는 현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컷오프’ (공천 배제) 대상을 가리기 위한 여론조사도 시작했다.

각 지역의 일만 유권자를 대상으로 현역 의원에 대한 선호도, 후보 경쟁력 등을 묻는 조사로 외부 전문가에 위탁해 진행되며, 이르면 25일, 늦어

도 이번 주말 전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해당 여론조사는 공천 심사에서 현역 의원 평가 기준이 되는 ‘교체지수’ 산출에 가장 큰 비중(40%)을 차지한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질서 있는 세대교체’ 기초 아래 현역 의원 가운데 하위 평가자 10%를 일괄 컷오프 한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당 경쟁력을 따져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현역 교체지수’ (당무감사 결과 30%, 컷오프 조사 40%, 기여도 20%, 면접 10% 등 합산 평가)가 하위 10%에 들면 컷오프된다.

이를 적용하면 국민의힘 지역구 의원 90명 중 7명이 컷오프, 18명이 20% 감점 대상이 된다. /연합뉴스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링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운영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중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중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봉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1997 테린인드스트리(주) 법인설립
2011 수출백만불팀, 수출유공자 수상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2016 중소기업부정관청 (유망중소기업인)
2019 환경부장관 표창 (환경보전 공로)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2023 국제형 모범납세자 표창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테린인드스트리(주)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31120-중-161682호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무릎 인공관절 수술 고민될때!
첨단우리병원 원장님과 상의하세요!!

첨단우리병원

전화 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